

한국농어촌공사 익산지사, 추석 맞아 이리보육원 위문

온누리 상품권 50만원 기탁 및 직원 15명 환경정리 봉사활동 구슬땀

섹션: 지역 기자: 고운영

입력: 2026년 09월 17일 15:17 승인: 2026년 09월 17일 18:26



한국농어촌공사 익산지사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역 아동들을 위한 나눔과 봉사활동을 펼쳤다.

한국농어촌공사 익산지사는 17일 이리보육원을 찾아 50만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전달하고 시설 내·외부 환경정리와 청소 봉사활동을 벌였다.

이날 익산지사 임직원들은 보육원 아이들이 명절 연휴 동안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시설 곳곳을 정리하고 청소하며 구슬땀을 흘렸다.

또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소비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온누리상품권을 구입해 아이들이 풍성하고 따뜻한 한가위를 보낼 수 있고 위문품으로 전달했다.

김태용 지사장은 "추석을 맞아 아이들에게 조금이나마 따뜻한 위로와 응원의 마음이 전달되기를 바란다"며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밀착형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익산=고운영 기자

기사 주소:

<https://sjbnews.com/news/news.php?number=888093>

